

칼데라의 기원에 얽힌 신화

신이 발로 차서 생겨난 풍경

먼 옛날에 아소의 칼데라는 호수를 품고 있었습니다. 이 칼데라에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칼데라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호수의 물이 빠진 후였습니다. 이 지역 신화에서는 이 변화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(健甕龍命)라는 신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. 처음에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칼데라 서쪽 중간쯤에 있는 겹고개에서 칼데라 벽을 발로 차 무너뜨리려다 실패했습니다. 그래서 그곳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다테노에서 다시 벽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는데 이번에는 성공이었습니다. 벽이 붕괴하자 물이 흘러나와 칼데라에 있던 물이 다 빠졌습니다.

현재 시라카와 강과 구로카와 강이 합류하여 칼데라에서 흘러나오는 지점을 다테노라고 합니다. ‘다테노’라는 지명은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가 2 번째 발차기 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을 때 말한 “다텐노(‘못 일어나겠어’라는 뜻의 일본말 방언)”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호수의 물을 빼내 사람들이 칼데라 안에서 생활하고 농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 때문에 다케이와타쓰노미코토는 '아소의 아버지'라고 여겨지고 있으며, 아소산에 얽힌 12 주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꼽힙니다.